

# “해외서도 커튼콜 받을래요”

올 문턱에서 색다른 공연 두편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극단의 첫 해외진출 연극 '귀족놀이'와 고구려 역사를 다룬 뮤지컬 '안악지애사'. 귀족놀이는 프랑스 풍자희곡의 대가 몰리에르의 '귀족수업'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지만 여기에 적인 색채를 듬뿍 입혔고, 그 내용 그대로 프랑스로 진출한다. 지애사는 고구려 고분인 안악 3호분을 소재로 한 고구려 역사극이다. 제작진은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해외까지 갔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17세기 프랑스 귀족사회를 한국 색채로 귀족놀이  
 몰리에르의 원작 '귀족수업'은 평민 주르댕이 귀족계급에 끼어들려고 온갖 소동을 벌이지만 결국은 웃음거리로 전락한다는 코미디. 그러나 이번에 선보일 귀족놀이는 주르댕이 후작부인을 사모하면서 문화와 예술로 그에게 접근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돈과 가족 모두

다 가졌지만 문화적인 소양이 없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엄청난 열정으로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한다는 계획. 프랑스라는 배경에는 변함이 없지만 부채춤 갈춤 등 한국무용이 등장하고, 원작의 바로크 음악을 국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으로 바꿔 연주한다. 연출을 위해

장에서 무대에 오르며 10월 11~16일에는 프랑스 브르타뉴의 로리앙극장 무대에 다시 올려져 프랑스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로리앙극장은 공연과 때를 맞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함께 열 예정이다. (02)2280-4115  
 ◇고구려의 후예여 깨어나라 안악지애사

몰리에르 '귀족수업' 원작  
 갈춤 등 한국식 무용접목  
 10월 프랑스 본고장 공연

귀족놀이

안악지애사

고구려고분 소재 창작뮤지컬  
 스케일 장대 '퓨전사극' 지향  
 국내 성공 후 해외진출 목표

프랑스에서 건너온 유명연출가 에리크 비니에는 "이 작품은 한국의 국악과 춤 등이 어우러진 한바탕의 축제"라며 "자연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한국의 국악기가 바로크음악을 표현해내는 것이 무척 멋지다"고 밝혔다.  
 9월 11~2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문제가 터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무대에 오르는 창작뮤지컬 안악지애사. 그러나 사회 이슈에 발맞춰 줄속 기획된 작품은 아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있는 고구려 고분 안악 3호분을 소재로 고구려의 장대환역사와 사랑, 음모를 그려낸다. 인기

를 끌었던 드라마 '다모'처럼 퓨전사극 분위기를 내보겠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 깔끔한 외모와 가창력을 갖춘 차세대 뮤지컬배우 엄기준이 주인공 태랑 역을 맡았다. 안악 3호분의 벽화를 재현한 무대와 2001년 한국뮤지컬 대상 음악상을 수상한 작곡가 정민선의 힘찬 음악

이 고구려 분위기를 흠뻑 전해줄 예정. 창작뮤지컬이 성공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제작진은 국내 초연 성공은 물론이고 세계무대 진출까지 노리겠다고 밝혔다. 관객은 작품 완성도와 관객 흡인력이다. 9월 10일~10월 2일 코엑스 오디토리움. (02)558-7854 이은영기자 cora21@naver.com 8/31

